

# 보령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3년 회기 운영 마침표

- 김재관, 김정훈, 추보라 의원 5분 발언...박상모 의장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 2024년도 본예산 9584억 원 확정, 2023년도 대비 659억 원 증가한 규모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지난 15일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5회 제2차 정례회의 폐회를 끝으로 2023년 회기 운영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다루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례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재관 의원이 ‘명암천 종합개발을 통한 도시 생태하천 복원’을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으며,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박상모 의장



▲ 김재관 의원

김재관 의원은 발언을 통해 “명암천을 방치하지 말고 시민 모두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하루속히 관련 사업이 시행돼 명암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모 의장은 건의문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7년 준공 예정으로 변경돼 공사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철도의 완전한 개통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서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2단계 지점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김정훈, 추보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우선 고용 혜택 현실화’를, 추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 관리 종합대책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 김정훈 의원



▲ 추보라 의원

김정훈 의원은 지역주민 우선 고용 현실화를 위해 “가산점을 30퍼센트로 높이고, 적용 범위를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보령시 전체로 확대할 것”과 “채용목표제의 대상이 되는 졸업 대학의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30퍼센트 중 10퍼센트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의무채용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추보라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보령산 수산물의 방사능 관리는 물론, 유통 관리 강화, 잠재적 어업 피해 대책 등을 포함한 체계화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백영창, 서경옥, 김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보령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1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도 확정 됐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2305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52억 원이 증가했으며, 2024년도 본예산은 9584억 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659억 원이 증가했다.

시의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처리했으며, 이날 회의 종료에 따라 2023년에 계획된 7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박상모 의장은 “올 한해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2023년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의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2단계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건의

2023. 12. 4.(월)

보령시의회

청▲ 건의문 채택

추 보라

서 경 옥